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503>

JCCT 2024-5-58

## 토픽모델을 활용한 명문대 재학생의 학벌에 관한 인식 분석

# A Prestigious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by a Topic model

정영선\*, 이승연\*\*

Young Son Jung\*, Seung-Yun Lee\*\*

**요약**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명문대로 분류되는 한 대학의 학생이 작성한 학벌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분석하여 이들이 가진 학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내재한 의미를 분류한 연구이다. 분석에서 활용한 방법은 토픽 모델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으로 총 172편의 문서를 분석한 후 각 토픽에서 빈출한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학생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한 토픽은 학벌의 순기능(토픽 1), 양날의 검(토픽 2), 권력공동체(토픽 3), 승리의 징표(토픽 4), 학벌의 역기능(토픽 5)의 다섯 가지이다. 각 토픽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단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픽 1에서는 '개인', '지위', '수단'이, 토픽 2는 '정의(定義)', '학교', '의미'가, 토픽 3은 '사람', '출신', '권력'이, 토픽 4는 '대학(교)', '능력', '노력'이, 토픽 5는 '학력', '우리나라', '출신'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명문대 학생이 학벌을 논할 때 계급과 학벌 공동체, 사회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계급재생산을 고려하지만 인종 및 민족과 같이 학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의 관련 강의에서 보다 다양한 요인과 학벌의 관련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학벌, 계급재생산, 교육사회학, 토픽모델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ssays of academic background, written by students from a university, which is classified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in Korean society. By Latent Dirichlet Allocation, 172 essays were analyzed to explore the students' perspectives of the academic fractionalism. The analysis identified five topics such as, functional aspects (Topic 1), double-edged nature (Topic 2), power communities (Topic 3), symbols of victory (Topic 4), and dysfunctional aspects (Topic 5).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keywords are 'individual,' 'status,' and 'means' in Topic 1, 'definition,' 'school,' and 'meaning' in Topic 2, 'people,' 'origin,' and 'power' in Topic 3, 'university,' 'ability,' and 'effort' in Topic 4, and 'academic achievement,' 'South Korea,' and 'origin' in Topic 5. By exploring the topics, we found that students regarded class reproduction by education as important social issues and they showed little interest in other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fractionalism, such as race or ethnic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fessors, who teach the impact of education on academic fractionalism, deal with the influence of diverse factors on academic fractionalism.

**Key words** : Academic Fractionalism(hakbul), Class Reproduction, Sociology of Education, Topic Model

### 1. 서론

학벌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하는 것

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적이다. 학벌이 대학 입학에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

\*정회원,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한신대학교 IR센터 연구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7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30일

Received: March 7, 2024 / Revised: April 12, 2024

Accepted: April 30, 2024

\*\*Corresponding Author: seungylee@hs.ac.kr

Institute of Research Center, Hanshin Univ, South Korea

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확정지어지며 다른 학벌을 가진 자와의 구분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학벌이 아닌 능력에 초점을 두고자 학벌이 직접적으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불평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의 능력을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의 타당성 논란도 있다[1].

이와 같이 학벌과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학벌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 연구[2-4] 및 긍정적인 관점에서 학벌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부정은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연구[5-6] 등 논쟁에 대한 답은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 학벌의 수혜자와 피해자 역시 논쟁에 대한 답을 쉽사리 답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든 이미 학벌은 상징체계로서 한국사회에 뿌리내렸음과 동시에 개인이 아비투스로서 체화한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 수혜자의 범위 역시 수혜자가 어떤 집단에 속하여 일을 행함에 따라 달라진다. 소위 어떤 장(field)에 속하는지에 따라 그 곳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수련생, 여론 형성자 등의 역할이 달라진다[7].

이에 우리는 학벌 수혜자의 관점에서 학벌이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혜자 및 피해자의 관점에서 학벌의 의미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가 학벌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였으나 질적으로 탐색하는데 그쳤다는 한계를 고려하여[8-10],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명문대로 알려져있는 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벌과 교육적 노력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하는 교육사회학 강의에서 작성한 학벌 관련 에세이를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토픽 모델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2차적으로 모델 분류에 활용한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에세이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인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학벌주의 사회의 이해 또는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벌의 정의

학벌은 교육 이력을 의미하는 학력과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학력 그 이상의 의미, 즉 학력을 쌓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류 등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학력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개인이 교육을 받은 이력을 기록한 것이 학력(學歷)이라면, 학벌은 학력을 공유한 사람들이 형성한 세력, 즉 “사회적 권력화된 학벌” 바로 “학벌”이다[6]. 보다 구체적으로 “같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이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식적 파벌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11]. 따라서 학력이 객관적인 기록이라면, 학벌은 나와 같은 학력을 가진 자와 아닌 자에 대한 구분과 배제를 수반하는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 개념이다. 이에 학벌은 배제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학벌이 지닌 배제의 기능으로 인해 학벌과 학력에 대한 관련한 논쟁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그 중 한 가지는 학력이 과연 학벌이 지닌 배제의 논리를 정당화할 만큼의 지표로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학력이 교육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능력을 대표할 만한 지표라는 입장이 존재한다[6]. 신분이나 계급과 같은 귀속지위가 중요한 사회에서 능력으로 성취하는 지위가 중요한 사회로 변화하면서 학력은 “가장 신뢰할만한 능력 판단의 기준[5]”이며 동시에 특히 교육에의 열망이 강한 한국 사회에는 교육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다른 이들이 선망하는 학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학력은 우연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학력의 지표 기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경쟁의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력은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으로 경쟁의 시작점과 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의 결과물인 학력은 경쟁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학력이 공정한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면 학벌 역시 공정한 경쟁의 산물이라 할 수 없다[3-4]. 결국 학력과 학벌로 인한 구분과 배제는 경쟁의 시점에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을 공고화하는 역할, 중 계급의 재생산 역할을 수행한다.

“학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적 특성도 보여준다[12]”. 따라서 한번 정해진 학력은 특정 학벌로 이루어

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의 능력, 성향을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즉, 사회는 개인을 학벌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개인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학벌에 투영하면서 학벌과 자신을 동일시한다[3]. 이러한 구분 덕분에 학벌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학력을 쟁취한 자와 경쟁에서 실패하고 원치 않은 학력을 가진 자 간에는 격차가 발생한다. 학벌은 “그 자체로 위계서열 구조를 형성[12]”하며, 이 서열은 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점에서 “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13]”이다. 이에 따라 학벌은 개인의 자기과시의 수단이며 동시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12].

결국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는 지표로서의 학벌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된다[5]. 이러한 특징을 두고, 학벌을 “조선시대의 문벌[4](p. 66)”이나 “카스트 체계[12]”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신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즉, 신분사회는 붕괴되었으나, 학벌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형성된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변화하지 않으며, 개인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귀속지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14-15].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오히려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4, 12]. 그러나 한번 정해진 이력은 변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지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격차는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12].

이와 같이, 학벌과 관련된 비판적 관점은 학벌이 사회의 불평등과의 깊은 연관성에 주목한다[4, 16]. 대중교육의 확대로 사회의 평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던 교육이 오히려 그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새로운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상위 계급으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다[8]. 따라서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는 일종의 “계급 사회[2]”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학벌은 사회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8].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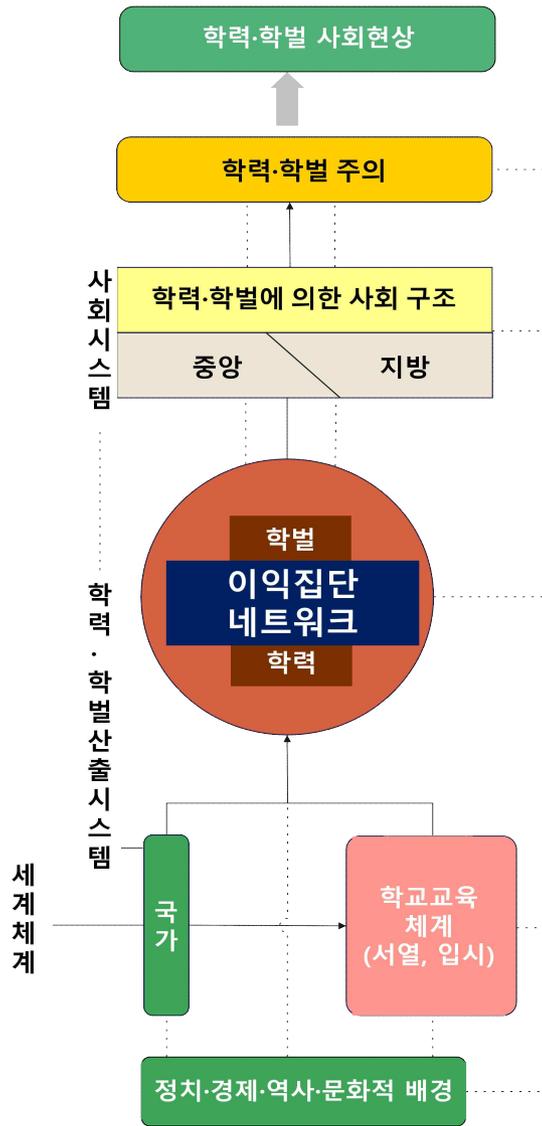


그림 1. 한국사회의 학벌생성에 대한 이론적 구조  
 Figure 1.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academic attainment in South Korean society[17]

초, 중, 고부터 고학벌 사회로 들어가 학벌을 재생산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림에 잘 나타나있다. 다만 문제는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사회 차원이며 개인이 학벌에 대하여 자기 과시를 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 [12]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유명 대학에 속함으로써 고학벌자로서의 자존감을 느끼는 동시에 학벌의 정점에 이르지 못하게 된 열등감을 체화한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개인 수준으로 체화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선행 연구 분석

지금까지 학벌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 주제는 학벌의 계층화 등 학벌로 인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한 연구[6, 12, 18]와 학벌 중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제시이다[5, 13, 16]. 이러한 두 유형의 연구는 학벌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주로 우리나라의 학벌과 학력 중심의 사회 모습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학벌사회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학벌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주로 다루지는 주제는 아니지만, 학벌을 하나의 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 당사자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학벌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생 재학생을 탐구한 연구와 [9], 상대적으로 학벌 피라미드의 하위에 있는 지방사립대 재학생의 관점에서 학벌이 의미하는 바를 질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8, 10]. 또한, 학벌을 극복하기 위해 유명 대학원에 진학한 중년 여성 영유아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형성한 학벌주의 정체성을 탐구하여 개인에게 있어 변화하는 학벌의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10].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A대학의 재학생이 갖는 학벌의 의미이다. 이 대학은 명문대 중 하나로 학벌의 수혜를 입는 대학으로서 언급된다. 이 연구를 통해 교육사회학을 수강하는 A대학 학생들이 부여한 학벌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연구자가 2019년 ~ 2020년 동안 A대학교 교직 과목인 '교육사회학'을 강의하면서 수집한 수강생들의 개인 에세이 172편이다. 에세이 작성 전 연구자는 교육 사회 과목의 수업 목표를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학적 이론을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관련 논문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교육 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벌'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학벌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작성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에세이 과제에 대한 분석하여 논문화 할 수 있음을 연구 전 설명하였으며, 학생의 성적과 관련하여 에세이를 작성하지 않도록 에세이의 분석은 최소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하였다.

### 2. 연구 방법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를 전처리하였다. 키워드 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는 '대학', 고등학교는 '고교' 등으로 통일시켰다. 또한 키워드 사이의 불필요한 공백, 쉼표, 따옴표 등은 stringr 패키지를 활용하여 일괄 제거하였다. 불용어처리(stopword) 함수를 구성하여 '하다', '하기'와 같은 단어는 제거하였다. 분석 도구로 R 4.3.3, Rstudio 2023년 9월 버전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토픽 모델 중에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법을 사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이미지 등의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주제를 캐내는(mining)하는 분석 방법이다[19], 예를 들어 웹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는데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가 존재하며[20], 방송에 대한 프레이밍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픽 연구를 활용한 예가 있다[21].

토픽모델링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을 활용하였다. 위계적 LDA 등의 다른 방법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문헌, 단어 등의 층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생성자를 세부 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단하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샘플링 방법은 Gibbs 샘플링을 활용하였다. Gibbs 샘플링을 활용한 토픽 분석은 topicmodels 패키지로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문서는 172편이었으며 단어는 521개였다.

토픽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토픽의 수(k)는 Griffiths2004 지수를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Griffiths2004는 지정된 k값을 설정했을 때의 LDA모형의 로그우도이다[19, 22]. 일반적으로 k가 증가 했을 때 로그우도의 변화를 보아 증가분에 이득이 존재하는 가를 고려하여 k를 정한다[19, 22]. 그러나 토픽 모델에 있어서 토픽의 수는 통계적 방법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며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하기도 한다[22, 23]. 그래프로 나타난 Griffiths2004의 수치 변화는 그림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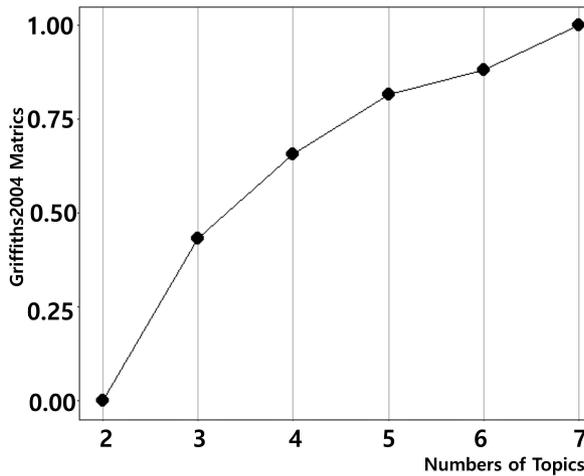


그림 2. Griffiths2004 수치 비교  
 Figure 2. The change of Griffiths2004

이론적 기반을 고려하여 토픽이 4, 5, 6, 7개일 시의 모델을 비교한 결과 5개일 때가 토픽 간 관계 및 학벌, 사회, 개인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또한 Griffiths2004 수치 역시 4개에서 5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나 5개에서 6개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토픽 숫자인 k는 5개로 정하였다.

#### IV. 연구 결과

k로 토픽수를 정하였을 때 각 토픽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 5개는 다음 표 1과 같다. 마지막 줄의 숫자는 해당 토픽에 속하는 문서의 숫자이다.

표 1. 토픽 분류의 결과  
 Table 1. Topic classification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Positive function	Double-edged sword	Community of Power	Evidence of victory	negative function
individual	definition	person	university	academic attainment
position	school	origin	ability	my country
means	meaning	power	effort	origin
definition	social class	specific	competition	station
recognition	group	construction	social class	proof
40	55	46	43	53

위의 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는 해당 토픽의 문서가 많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그림 3. 토픽별 주요 단어와 관련 문서 수  
 Figure 3. Keywords and documents of individual topics

토픽 1의 제목은 ‘학벌의 순기능’으로 결정하였다. ‘개인’, ‘지위’, ‘수단’이 가장 많이 추출된 단어이다. 토픽 2는 ‘양날의 검’으로 ‘정의(定義)’, ‘학교’, ‘의미’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 3위까지이다. 토픽 3은 ‘권력공동체’이며 ‘사람’, ‘출신’, ‘권력’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3개이다. 토픽 4는 ‘성공의 지표’로 노력에 따라 경쟁에 승리한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학벌’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대학(교)’, ‘능력’, ‘노력’이 많이 나타나는 단어이다. 토픽 5는 ‘학벌의 역기능’이다. ‘학력’을 매개로 나타나는 ‘파벌’이 ‘학벌’이라는 뜻이다. 빈출하는 단어 3가지는 ‘학력’, ‘우리나라’, ‘출신’이다.

1) 토픽 1, 학벌의 순기능 이 토픽에서 학벌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도구이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맞게 개인에게 일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즉, 효율적으로 개인을 사회에 배치할 수 있는 도구이자 신호등이 바로 학벌이다. 관련 문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의 측면에서는 학벌이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 사회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토픽 1에서는 효율적으로 개인을 사회에 배치할 수 있는 도구이자 인증된 자격증이 바로 학벌이다. 즉, 개인은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한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높은 학벌을 갖게 되면 더 높은 지위로 이동 가능한 사다리를 갖게 된다.

*학벌은 엄연히 한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며 그렇기에 이에 대한 사회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다.*

학업은 지위의 사다리로 작용하는 공정한 사회이동을 추진하는 가장 적합한 매개체이다. 계층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에서 학벌은 지위 이동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기회이다.

물론 이 토픽에 속한 문서를 작성한 이들이 학벌의 불공평함을 모르지는 않는다. 연구대상 문헌의 작성자들은 “학벌이란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 중 하나”임을 인식한다. 그러나 개인적 측면에서는 “스펙”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과 동시에 타인에게 본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결국 문헌 작성자들은 학벌이 가지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끌어내는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다.

**2) 토픽 2, 양날의 검** 이 토픽에서 학벌의 역기능이 토픽 1의 문서보다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순기능이 존재함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학벌은 사람의 능력과 첫인상을 결정 짓는 신분증이자 계급 재생산을 유발하는 도구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학벌에 의한 계급재생산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Bernstein은 중산층의 언어와 저소득층의 언어가 구분되는데 학교에서 과학적인 논의를 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중산층 언어이므로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고성취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힌다[24]. Bourdieu & Passeron은 몸에 배인 습관, 즉 하비투스(habitus) 중 중산층이 갖고 있는 것이 중산층 문화에 우호적인 공간인 학교에서 졸업장과 같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24]. Apple은 학업성취와 계급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을 탐색, 학교는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숨겨진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에 지배계층의 문화를 학생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점을 지적한다[25]. 따라서 Apple은 결과적으로 학교가 경제적 재생산과 문화적 재생산의 매개체가 됨을 보여준다[25]. 이들 학자들은 학교의 문화와 그 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강조가 중산층 문화를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들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수단

을 통해 부유층이 자녀에게 그 특권을 획득하게 하려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며 이 결과물, 즉 더 좋은 대학의 졸업장이 ‘학벌’로 인정된다.

또한 학벌은 계급을 재생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높은 수준의 학벌을 가진 대학생들은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정체성을 형성한다. 연구 대상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출현한다.

*학벌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는 것이자 동시에 출신대학을 기준으로 형성된 정체성으로서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술한 인용문은 학벌의 기능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동일한 계급을 전수하는 역할 뿐 아니라 특정 학벌에 속한 이들에게 집단정체성을 부여하는 데에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집단정체성은 개인에게 자아존중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나는 학벌에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 학벌을 위해 인생을 살아오던 중 가장 최대의 노력을 쏟았기에 학벌은 내게 나의 열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토픽 2로 분류되는 문헌의 작성자들은 사회적으로는 계급의 재생산 수단임을 이해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학벌을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성공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학벌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토픽 2 문헌의 작성자는 부정과 긍정의 기능이 공존하는 도구, 즉 양날의 검으로서 학벌을 정의하고 있었다.

**3) 토픽 3, 권력 공동체** 토픽 3에서 학벌은 권력집단에 의해 합의된 공동체이자 사회적 지위를 창출하는 공동체, 즉 권력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기술된다. 학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들 사이에는 불공평함이 존재하는 동시에 높은 학벌을 기반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일원에게는 일종의 권력이 부여된다.

*소위 명문대라 일컬어지는 특정 상위의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인 이미지와 그것이 주는 세속적 이득으로서 경제력과 권력을 취하는 집단이다.*

학벌은, 쉽게 말하면, 대학의 서열화가 만든 학연으로 생기는 권력이다. 어떤 사람은 특정 학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 타인과 서열이 나뉘게 될 수 있다.

위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벌을 가진 사람을 일종의 집단으로 이다. 둘째, 그 집단은 특정 학교에 속하였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 경제력과 권력을 가지며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선다.

토픽3으로 분류되는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은 특정 상위의 학교에 속한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학벌이 권력을 창출하는 이유를 '사회적 이미지'라 보고 있으며 '특정 학교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근거라 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해당 학교에 속한 사람이 실제로 갖는 능력과는 관계없다. 단지 "대학의 서열화가 만든 학연으로" 발생한 '권력'일 뿐이다.

**4) 토픽 4, 승리의 징표** 토픽 4에 해당하는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벌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표상"이다.

학벌을 기울어진 운동장의 표상이라고 정의 내리고자 한다. 자연스럽게 대학 이름이 개인의 성취를 보여준다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이 시작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나에게 학벌의 정의는 14년간 치열하게 경쟁해서 얻은 첫 사회적 지위이다. 여기서 왜 12년이 아니라 14년인가 하면 나는 대학 입시를 세 번이나 치렀기 때문이다.

학벌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학교 마크는 평생 달고 다니는 신분의 증표이다.

토픽 4에 속하는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들은 학벌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상징이자 신분의 증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분의 증표와 노력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리고 있었다.

학벌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분야와 관련된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학벌은 그 학생이 학창시절 학업에 노력을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능력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는 수준 높은 대학으로 인식되는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실제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학벌이 노력의 지표라 생각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학벌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인간의 능력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가 학벌인 셈이다. 따라서 학벌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한다. 바로 '학벌은 순수 노력의 산물처럼 보이는 교육 기회의 대물림이다'와 '저는 학벌이란 나의 노력의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두 의견에서 모두 학벌은 공정하건 공정하지 않건 어떠한 종류의 경쟁에서 승리한 징표로서 규정되고 있다.

#### 5) 토픽 5 학벌의 역기능

토픽 1에 속하는 글에서는 학벌의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 토픽 5로 분류된 글에서는 학벌의 역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역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학벌과 능력은 별개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 학벌은 폐쇄적인 사회 계급을 형성하고 이 계급은 재생산된다.

학벌은 사회 속에서 출신대학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불공평한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출신대학을 기반으로 파벌을 만드는 학력공동체가 학벌이라 인식되고 있다. 토픽 5와 관련된 문서에서 학벌은 우리나라의 계급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기술되고 있다. 학벌과 능력은 별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벌은 사회 속에서 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불공평한 저울질을 한 결과로 묘사된다.

토픽 1이 학벌의 순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토픽 5는 학벌의 역기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학벌은 계급갈등의 요인이자 폐쇄적인 사회 계급의 형성과 재생산을 맡아서 한다. 학벌과 계급의 관계에 대하여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출신대학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폐쇄적인 계급을 생산한다. 이 무리는 '출신대학을 가지고 불공평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 묘사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적 수준이 비슷하다면 학벌에 기반한 인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임금수준과 복지 수준이 높은 직장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도 학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대학, 비슷한 학벌 출신이면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공동체의 건설 자체가 사회의 공평한 희소 자원 분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학벌의 역기능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희소 자원은, 학생들의 에세이로 미루어볼 때 지위, 권력, 경제력, 인맥으로 서술한다.

그렇다면 지위, 권력, 경제력이 학벌의 취득 결과 생산되어야 하며 이들은 다음 세대에서 재생산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학벌을 재생산하게 만드는가?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계급 외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교육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재생산에 대하여 다룰 때에는 경제적 계급과 문화를 재생산의 동인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 문화는 어떻게 학벌의 재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오성재와 주병기는 최하위 계층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의 역수를 반영한 개천용 불평등지수 고안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사회가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에 따라 기회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26]. 그렇다면 문화는 어떻게 계급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일까? Bernstien과 Bourdieu et al.는 초, 중, 고교에서 활용되는 중산층 언어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달라진다는 주장을 펴나[24][27] 학생들은 계급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하여 정확히 서술하지 않는다. Bowls와 Gintis는 1890년대 말 교육의 대중화 이후의 경제 분야와 교육분야의 분석을 통하여 학업성취자체나 유전적 요인이 경제력의 향상에 기여하기보다는 기여입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학벌이 계급의 재생산에 도움이 됨을 지적한다[28]. 무엇보다 대중화된 교육기관은 직업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체제에 봉사할 만한 노동자를 양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자녀는 리버럴 아츠 스쿨을 통하여 엘리트에 걸맞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엘리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체비를 갖추도록 지적한다. 즉, 대학교육 자체도 특성화, 전문화되면서 엘리트층을 위한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함을 밝힌다. 이처럼 학교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학교의 문화적 환경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학자와는 달리 비판인종이론가들

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재분배에 백인우월주의가 개체가 됨에 주목한다[29]. 구체적인 예로는 백인 역사, 백인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가 흑인 학생들을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에 진입시키는데 장벽이 된다고 보고 아프리카 중심 교육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30]. Yosso는 학교 문화가 히스패닉을 잠재적 저성취자, 가정에서 관심이 없는 학생으로 간주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반례로서 학부모, 학생이 주도가 되어 학교 문화를 바꾸어가는 히스패닉들을 소개하는 저항 서사(counterstory)를 소개한다[31]. 한편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흑인성을 부인하고 백인처럼 행동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 바로 Fordham와 Ogbu가 주장한 “백인처럼 행동하기(acting White)” 개념이다[32]. 백인처럼 행동하기 개념에 대하여는 찬반이 많긴 하지만, 적어도 학교의 문화가 주류 인종/민족에게 우호적이라서 그렇지 않은 인종/민족에게는 학업 성취를 위해 주류 인종/민족이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종 관련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다문화나 북한이탈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올리고 고학벌로 인정받는 대학 공동체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한국 배경을 가진 학생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 주민의 대학 진입 경험을 연구했는데 이들은 북한에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벌어진 낮은 학업성취, 북한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남한 학생들과의 힘든 경쟁을 경험하여 승리해야 대학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음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33]. 중단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배경을 비롯한 가족 구성과 교육비가 동일하다면 다문화와 비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사라짐을 발견한 연구도 있다[34]. 일반적으로 비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학생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은 불리한 여건에서 대학 준비를 위한 경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은 위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기보다 계급과 학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비판적 사회학이나 교육사회학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정당화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학벌로 인해 한국 사회의 리더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각종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V.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픽 1은 학벌의 순기능 강조, 토픽 2는 양날의 검 기능 강조이며 이 기능은 학벌을 가진 개인과 결부되었다. 토픽 5 토픽 역시 개인이 강조되는데 특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벌의 악영향이 서술되고 있다. 즉 토픽 1과 5는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 토픽 2는 두 가지 모두가 기술된다. 토픽 1, 2, 5의 영향 하에서 토픽 4는 개인이 가진 승리의 징표로서 학벌을 묘사한다. 토픽 3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한다. 고학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그 당시에 고학벌자로서 대접받는 동시에 고학벌자의 능력을 발휘하길 기대된다. 토픽 1, 2, 4는 유명대학의 학벌공동체가 사회적 성공으로 해당 대학 학생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현상에 대하여 토픽 1은 긍정적, 토픽 2는 긍정과 부정 모두, 토픽 4는 부정적 입장을 제시한다. 토픽 3은 학벌공동체에 의하여 공동체의 일원에게 높은 수준의 경제력과 권력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경제력과 권력은 토픽 4에서 보듯, 자녀가 높은 학업성취의 정도를 달성하는 데 기여, 결국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토픽 5는 이러한 재생산에서 학벌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부모의 2세대들이 학벌공동체 진입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드물게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학벌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학벌 공동체서 요구하는 학력 및 문화를 갖춘 사람이 되어 성공적으로 그 학벌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벌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학벌의 의미와 이것이 작동하는 과정을 한국 학생들에게 더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도 다문화 학생, 북한 이탈학생과 같이 한국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란 학생들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만큼 경제 계급 외에 인종, 다문화와 같이 학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학생들에게 자신과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할 기회, 그리고 학벌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 Kwon, "Is Blind Recruitment Fair?: A Theoretical Review of Recruitment Fairnes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36, No. 1, pp. 87-98, February 2021. DOI: 10.22903/jbr.2021.36.1.87
- [2] S. S. Kim, "Symbolic Violence and Pre-modern Academic Clique Society," *Social Philosophy*, Vol. 1, No. 16, pp. 131-160, October 2008.
- [3] J. H. Son and B. T. Kim, "Reality and Ideological Character of Yeonjul Society based on Hakryuk-Hakbul in Korea,"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24, No. 2, pp. 147-174, March 2016. DOI: 10.18230/tjye.2016.24.2.147
- [4] K. M. Lee, "The Conditions and Alternatives of Credenti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7, No. 4, pp. 63-85, December 2007. DOI: 10.32465/ksocio.2007.17.4.003
- [5] I. S. Nahm, "Contradictions of Korean Education based on Academic Success,"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 No.40, pp. 101-124, pp. 05-11, November 2011.
- [6] H. Y. Park, "Credentialism and Education Fever Analyzed by Three Layers of Scholastic 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s*, Vol. 32, No. 3, pp. 97-128, August 2018. DOI: 10.17283/jkedi.2018.32.3.97
- [7] É. Mangez and M. Hilgers, "The Field of Knowledge and the Policy Field in Education: PISA and the Production of Knowledge for Policy,"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11, No. 2 pp. 189-205, March 2012. DOI: 10.2304/eerj.2012.11.2.189
- [8] Y. K. Chung and Lee, H. "A New Broadcast Scheduling Scheme,"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 60, No. 3, pp. 699-724, September 2012. DOI: 10.25152/ser.2012.60.3.699
- [9] E. H. Jeon, "A Narrative Research on the Identity of Academic Factionalism am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jae)*, Vol. 20, No. 3, pp. 103-148, September 2017. DOI: 10.17318/jae.2017.20.3.004
- [10] E. H. Jeon, "Qualitative Research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Hakbeoljui' Identity of 'Hakbeol' Inferiorities,"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jae)*, Vol. 25, No. 1, pp. 39-80 March 2022. DOI: 10.17318/jae.2022.25.1.002
- [11] B. T. Kim, "An Analysis on the Cognition System of Korean Hakbulism," *Korean Journal of Education*

- ucational Research*, Vol. 49, No. 4, pp. 25-54, June 2011.
- [12] C. H. Lee, "A Sociological Research on the Phenomena of Showing-off One's Good Academic Cliqu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15, No. 2, pp. 380-413, December 2007. DOI: 10.17787/jsgiss.2007.15.2.380
- [13] T. H. Jung, "Hakbul Ideology: Discussion on Issues and Policies to Overcome the Problem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7, No. 2, pp. 93-129, May 2004.
- [14] D. H. Kim, *Korean Hakbul: Another Caste?*, Seoul: Chaeksesang, April 2001.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서울: 책세상.
- [15] S. B. Kim, *Hakbul Society: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Social Agency*, Gyeonggi-do: Hangilsa Publishing Co., Ltd., October 2004.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경기도: (주) 도서출판 한길사.
- [16] H. S. Choi, "The Study on the Andragogical Research to Deconstruct the Academic Clique for Achieving the Normalization of Education,"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Vol. 10, No. 2, pp. 189-212, May 2007. DOI: 10.22955/ace.10.2.2007.05.189
- [17] B. T. Kim, Discussion on Korean Academic Attainment and Connection-based Society. Kyo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2. 김부태. 한국 학력·학벌사회론: 절반의 공정성을 넘어. 경북대학교출판부. 2022.
- [18] J. W. Cheon, "Educational Background, Social Class, and Family, Disclosed in the Drama <Sky Castle> and the J.M. Shin's Incident 드라마 <스카이캐슬> 과 신재민 사건에 나타난 학벌·계급·가족," *Critical Review of History*, Vol., No. 126, pp. 423-450, February 2019. DOI: 10.38080/crh.2019.02.126.423
- [19] P. G. Baek, and N. Kim, "Research Trends in 'Women's Studies' Using Topic Modeling," *The Women's Studies*, Vol. 110 No. 3 pp. 159-194. September 2021. DOI: 10.33949/tws.2021.110.3.006
- [20] H. Shin and J. Choi, "Analysis of User Reviews for Webtoon Applications Using Text Min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4, pp. 457-468, July 2022. DOI: 10.17703/JCCT.2022.8.4.457
- [21] J. Y. Lee. "Deep Learning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Text M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7, No. 4, pp. 295-301, November 2019,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19.7.4.295>
- [22] Y. Paek. *Textmining by R*. Hanwool, 2017.
- [23] Y. Kim, *Do it: learning textmining by R easily*. Easys Publishing, 2021.
- [24] P. Bourdieu and J. C. Passeron,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2nd ed.) (R. Nice, Trans.). Sage Publications, Inc., 1990.
- [25] M. Apple. "Reproduction, Contestation, and Curriculum: an Essay in Self-criticism. *Interchange*, Vol. 12, Nos. 2-3, pp. 27-47, 1981.
- [26] S. J. Oh and B. G. Ju, "Inequality of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Vol. 10. No. 3, pp. 1-30, May 2017.
- [27] B. Bernstein, "Elaborated and Restricted Codes: Their Social Origins and Some Consequences," *American Anthropologist*, Vol. 66, No. 6, pp. 55-69, December 1964.
- [28] S. Bowls and H. Gintis. *Schooling in America*. 1976, 이규환(역). 학교교육과 자본주의. 사계절, 1986.
- [29] K. Bohpal, Critical Race Theory: Confronting, Challenging, and Rethinking White Privile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49, (July 2023). pp. 111-128. DOI: <https://doi.org/10.1146/annurev-soc-031021-123710>
- [30] P. C. Murrell, *African-Centered Pedagogy: Developing Schools of Achievement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 (The Social Context of Educ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 [31] T. J. Yosso, *Critical Race Counterstories along the Chicana/Chicano Educational Pipeline*, Routledge, 2005
- [32] S. Fordham and J. U. Ogbu, "Black students' school success: Coping with the 'burden of acting White,'" *The Urban Review*, Vol. 18, No. 3, pp. 176-206, September 1986. DOI: <https://doi.org/10.1007/BF01112192>
- [33] Y. S. Jung,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of North-Korean Defected-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4, pp. 303-333. December 2019. DOI: <http://dx.doc.org/10.22251/jkci2019.19.24.303>
- [34] M. Youn and C. Kang "Educational inequality of immigrant students: Examining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on achievement gap between immigrant and native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12, No. 4, pp. 57-77. December 2019. DOI: 10.14328/MES.2019.12.31.57